

# 독일어와 한국어 특허문서에 쓰이는 고정적 언어 표현에 대한 연구

정 수 정 (충북대)

## I. 서 론

글로벌 과학 기술 시대에 국가 간의 상호 기술교류가 증대함으로써 기술문서에 대한 다방향적 번역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기술의 지속적이고 빠른 국내 유입과 국내 기업의 외국 진출로 인해 외국어 기술문서와 한국 기술문서가 다국어로 번역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계자동번역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up>1)</sup>

기술문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특허문서는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단계를 반영하고 기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의 과학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자원이다. 과학기술의 언어와 법률언어가 상호 접맥된 융합 텍스트인 특허문서는 과학기술의 창조적인 행위에 기반을 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처리과정 및 제조방법 혹은 그 사용법 등을 문서화하여 제 3자에 대하여 독점권을 행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허문서 번역에 관한 방법론의 개발 및 전문 번역에 대한 수요는 오늘날 점점 증가하고 있다(Göpferich 1996: 33; Scheel 1997a: 487-488, 492). 이러한 전문문서는 기계자동번역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계자동번역은 빠른 속도로 문서의 대략적인 개요를 파악하는 데에 적절한 반면, 특허문서와 같은 전문적이고 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텍스트는 그 번역에 있어서

---

1) 자동번역 연구에 관해서는 최승권 외(2012), 이주영(2011)등 참조

단순히 개괄적이고 대략적인 내용전달보다는 정확하고 매우 정밀한 내용의 전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언어와 법률언어가 융합되어 언어적으로 표준화된 특허문서 고유의 특성과 개개 문화의 언어 표현적 정형화 역시 번역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어와 한국어의 특허문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어휘들의 고정 결합체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허문서의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표현들을 수집하여 이를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어휘들의 고정적 결합체는 넓은 의미에서의 관용구라고 할 수 있다(Burger 2007, Kühtz 2007). 광의의 관용구 개념은 관용구를 가능한 한 넓게 정의함으로써 구조적으로는 약하더라도 일정정도 고정성을 띠는 어휘들의 결합체를 포괄한다. 이러한 관용구 모델은 특허문서 텍스트 유형 특유의 정형적인 표현의 화용론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언어들 간의 번역 및 대조와 관련된 연구에 매우 적합한 모델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특허문서라는 텍스트 유형의 구조와 언어적 특이성 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3장에서는 독일어와 한국어 특허문서의 텍스트 구조를 토대로 특허문서에 전형적 표현들을 수집하여 그러한 표현체들의 텍스트 및 의사소통적 기능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 II. 특허문서

### II.1. 특허문서의 텍스트 구조

특허문서 혹은 특허명세서에는 기술과 법률에 관한 전문적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유형이다. 특허문서에 쓰인 언어의 복합적이고 특이한 성격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사안을 법적인 요구에 부합되게 서술하고 특허법에

서 정의한 대로 법률적인 청구와 그 속에서 경제적 행위허용 영역을 근거지  
 워야 하는 요구에서 비롯된다.<sup>2)</sup> 따라서 법률적 언어의 특성을 지닌 기술관련  
 문서로서 특허문서는 기술문서의 스펙트럼 내에서 강한 법적, 규범적 특징을  
 지닌 텍스트로 귀속될 수 있다.(Göpferich 1998, 90f.) 기술 관련 전문문서의  
 언어는 전문성이나 언어적 측면에서 변이가 매우 드물며 결코 일반적 언어  
 텍스트의 특징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보편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특수 전문  
 인을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이다. 따라서 특허문서의 언어는 학술적인 전문어  
 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에게 접근이 매우 어렵다.

특허문서의 전형적인 텍스트 구조와 구성 방식은 특허 관련 전문 어휘의  
 확장 및 발전과 더불어 완성되어 오늘날 국제법적으로 공시되어 규범화되었  
 다. 특허문서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내용 구성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  
 져 있다.<sup>3)</sup>

- 1) 요약 Zusammenfassung
- 2) 설명 Beschreibung
- 3) 특허청구 Patentansprüche
- 4) 도면 Zeichnungen

발명품의 특허신청서를 전문가 수준으로 작성하게 만드는 특허법의 요구는  
 무엇보다도 발명품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허신청서  
 에는 새로 개발된 ‘기술적 행위’가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이러  
 한 기술적 행위와 그에 대한 상세한 실시예, 그리고 발명 그 자체와 새롭게  
 획득한 기술 공학적 인식이 공학 분야의 일부라는 사실이 서술되어야 하므로  
 문서 작성 시에 학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언어 사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발명가가 자신의 실험적 경험과 그 결과에서부터 출발하여 특허발

2) Schamlu(1985)는 특허문서라는 텍스트 유형 특유의 논증적 성격 및 구조에 대하여 의미  
 적, 화용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3) Schamlu(1985, 61ff.) 참조.

명출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은 기술공학적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이며 기술공학적 과제에 대한 문제제기 및 그 해결방안을 설명하여 제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입증이자 획득한 인식의 일반화와 그에 대한 적절한 언어적 서술 능력에 대한 입증이기도 하다. 발명품에 대한 특허보호를 위한 청구항목에서는 발명의 특징을 정확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특허 청구항목의 서술 방법 또한 특허출원 문서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허문서의 텍스트 내용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텍스트 구조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up>4)</sup>

1. 표지	서지 표시 및 요약 1) 서지정보 서류번호, 출원일자, 공개일자, 특허등록 공시일자, 국제분류, 출원인, 대리인, 발명자, 심사 참조 서류 2) 발명의 이름 3) 요약 발명의 명명, 기술적 과제와 목적, 해결방안의 특징, 특수 사용분야 4) 도안: 요약 내용을 명시화하기 위한 간략하며 개괄적인 도안
2. 설명	- 발명과 기술 수준에 대한 설명: 청구와 비교하여 발명의 핵심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영역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읽기 쉽게 설명 1) 발명의 이름 2) 기술 분야 3) 기술 수준(장점 및 단점) 4) 단점에서 비롯된 기술적 문제

4) 도표는 Schalmu(1985, 86ff.) 참조하여 구성한 것이다. 한국어의 경우는 구체적인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설명’은 ‘명세서’로 명명되며 이 명세서에는 구체적인 세부항목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기술 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 자세하게 부분단락의 제목을 명시적으로 명명하고 있다.

	5) 문제 해결 (발명에 대한 기술) 6) 발명의 특징 7) 목적과 사용분야 8) 해결방안의 장점에 대한 설명과 선호되는 사용분야 9) 실시예에 대한 설명
3. 특허 청구	- 발명품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규정 기술 1) 주요 청구에는 발명품을 만들어 제시한 문제 해결에 필수 불가결한 모든 특징을 포함한다. 2) 부속 청구는 발명에서 또 다른 특징에 대한 것으로, 주요 청구처럼 문제에 대한 부가적이고 독립적인 해결방안이나 발명범주를 포함한다, 3) 종속 청구는 독자적이지 않으면서도 주요청구나 부속청구와 연계되어 있는 특징에 대한 진술, 세부 구성, 선호되는 실시형태를 담고 있다.
4. 도면	- 특허문서에서 상호연관성 설명 및 명시화

## II.2. 특허문서의 언어적 특징

특허문서는 앞 절에서 이미 전술한 바 있듯이 기술 공학적, 법적 전문어로 이루어져 있는 언어적으로 상당히 높은 정형화 및 표준화를 보여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허문서의 내용적, 언어적 표준화는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발전한 규약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며 (Gläser 1998, 561),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국가의 법률과 법령 그리고 관할 특허청의 법률적 행정적 지시의 영향이기도 하다. 따라서 특허문서 작성 기준은 논증의 측면에서 더욱 규범을 조장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sup>5)</sup>

특허문서에서 관습성 및 정형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은 특허문서의 텍스트 구조로서 이는 국제적으로 통일화되어 개별 - 예를 들어 기계

5) Göpferich(1995b: 221-234, 2006: 222)에 의하면 이러한 기준 위반 시에 특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거부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경제적인 손실과도 직결될 수 있다.

공학, 자연과학, 의학 등 - 전문 분야에 구속을 받지 않는 거시구조이다. 텍스트 구성면에 있어서 발명에 대한 설명과 특허청구로 구분될 수 있는 이 거시 구조에는 특허문서라는 텍스트 유형이 지니는 기술적인 기능 이외에도 논증적인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미시구조에 있어서는 다수의 스테레오타입에 해당하는 표현들, 예를 들어 통사적으로 고정된 하나의 덩어리 형태의 어휘 결합체에서 언어적 표준화 및 정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체들은 관용구의 하위부류인 상투구와 텍스트 및 의사소통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일정정도 공통점을 지닌다. Burger(2007, 36f.)에 의하면 의사소통적 관용구 “kommunikative Phraseologismen”은 의사소통의 관례를 수행하는 데에 일조하며 이러한 특수한 기능성에 의해 의사소통 내에서 특화되는, 통사적으로 매우 상이한 표현체이다. 전문적 텍스트에서 상투적으로 반복해서 쓰이는 표현체들은 논평이나 지시 기능을 수행하면서 의사소통을 조절하거나 텍스트를 구조화한다 (Kühtz 2007, 200ff.).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dt. die vorliegende Erfindung betrifft ..

2) ko. 본 발명은 ...에 관한 것이다

위의 예 1)과 2)에 있는 통사적으로 고정된 어휘 결합체들은 특허문서의 요약이나 설명의 앞부분에 위치하여 해당 단락의 도입이나 개시 기능을 수행한다.

지시적 표현 요소 역시 특허문서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적 정형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대표적인 예로는 텍스트 논증적 표현체들에서 나타나는 지시사들과 텍스트와 도안과의 관계를 생성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지시 표현들이 이에 해당한다.

6) 비교 언어적 관점에서 유럽언어들 간의 특허문서 혹은 그 번역본을 분석한 Göpferich(1995b)와 Scheel(1997)연구에 따르면 유럽특허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각 언어마다 언어적 정형성에 있어서 일정정도 문화적 특수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 3) dt. Zweck der Erndung ist daher, ...
- 4) dt. Der Erndung liegt *deshalb* die Aufgabe zugrunde ...
- 5) ko.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의 목적은 ...를 제공 하는데 있다

위의 예에서 쓰인 ‘daher’, ‘deshalb’,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와 같은 지시적 표현체들은 텍스트의 거시구조를 더욱 확고하게 결합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때 전술한 내용과의 연관성을 접속부사를 통해 주로 드러내는 독일어와는 달리 한국어의 경우는 전술한 내용을 짧게 정리 요약함으로써 그 연관성을 표현하고 있다.<sup>7)</sup>

특허문서의 또 다른 두드러진 언어적 특징으로는 응집수단의 반복, 지나치게 복잡한 통사구조 그리고 법률적인 특징을 지닌 전문텍스트에서도 보기 드문 문장의 길이 등이 이에 속한다(Härtinger 2010, 25ff.).

- 6) Sodann gelangt die Verpackungshülle zu einer Quetschzone 5, die durch zwei Quetschrollen 5a und 5b gebildet ist, nach deren Passieren die Verpackungshülle wieder die Form eines Sackes annimmt, der nach oben ansteigt und zwar zweckmäßig etwa senkrecht nach oben und der durch das Bezugszeichen 2b markiert ist. Dieser Sack ist in seinem unteren Bereich mit Aromastoffen 6, insbesondere Gewürzen entsprechend 30 Mesh bis 50 Mesh, also einer Korngröße von etwa 0,3 mm bis 0,6 mm gefüllt.
- 7) ko. 본 발명은 페폴리에스테르를 이용하여 재생 폴리에스테르사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페폴리에스테르 플레이크와 에틸렌글리콜(EG)을 몰비 1.0:0.1~2.0으로 혼합하고 용융한 후, 상기 용융된 혼합물을 해중합하여 비스-2-히드록시에틸테레프탈레이트를 생성하는 해중합

---

7) Gläser (1998, 559)는 지시적 표현체들의 쓰임에서 언어 문화적 특수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 상기 해중합공정으로 생성되는 비스-2-히드록시에틸테레프탈레이트를 진공상태에서 중합하여 폴리에스테르를 생성하는 중축합단계; 상기 중축합공정으로 …….

위의 6)과 7)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독일어의 경우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절 문장의 사용과 한국어의 경우 ‘상기’의 계속적인 반복 사용 및 앞에서 언급한 실행행위를 명사로 재수용하면서 - 예를 들어 혼합하고 용융한 후→ 상기 용융된 혼합물을 해중합하여→ 상기 해중합공정으로 생성되는 ... 중축합단계 → 상기 중축합공정으로 - 그 관계성을 명시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특허문서의 언어적 특징들은 사실 일반적인 텍스트에서 중요시되는 가독성이나 언어경제성과는 상반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문서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텍스트의 어휘적 통사적 응집성 강화이다. 이는 특허문서의 핵심적인 소통 기능이 특허 보호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전문적인 개념용어와 개별적으로 정의된 전문적 표현들 역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들이다. 이에 반하여 비교적 세부적으로 명세화하는 경우 부가어 수식을 받지만, 의미적으로 그 폭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 명사들은 특허권 보호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Göpferich 2006: 223).

### Ⅲ. 특허문서 분석

지금까지는 특허문서의 구조와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특허문서의 구조와 언어적 특징을 공고히 해 주는 구체적인 고정적 언어표현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주된 연구 자료는 독일어와 한국어의 공개된 특허문서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독일어 10개와 한국어



10개 특허명세서이다. 이 연구 자료는 2010년부터 2012년에 공개된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능한 사용영역을 고루 아우를 수 있도록 자연과학과 기계공학, 의학 등의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사용영역의 편향성을 지양하는 것은 특허문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 표현체의 특정 분야 종속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특허문서에 쓰이는 표현들의 문화적 종속성과 현대독일어와 한국어의 시류 및 경향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두 언어 모두 가능한 최근 자료를 코퍼스로 선택하였다.

자료 분석 목적은 특허문서라는 텍스트 유형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통사적으로 서로 상이한 복합적인 어휘들의 결합체를 분류하여 범주화하고 이를 평가하는 데에 있다. 또한 이러한 고정적 어휘 결합체들에서 나타나는 텍스트 유형 특유의 기능을 고찰하는 데에도 본 연구의 주안점을 둘 것이다.

### III.1. 독일어와 한국어 특허문서에 나타나는 표현모형

독일어와 한국어의 특허문서 코퍼스에는 다수의 통사적으로 고정된 언어적 표현체 혹은 표현모형 *Formulierungsmuster* 혹은 구성구조를 볼 수 있다. 이 언어 표현체 혹은 구성구조는 다수의 변이형 형태로 코퍼스에 나타나는데, 이때 대부분은 의미 내용적 유의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특허문서에서 나타나는 이 어휘결합체는 Kültz (2007, 237)에 의하면 ‘포괄적으로 고정된 정형성 *weitgehend stabile Formelhaftigkeit*’을 띠는 것으로 ‘복합적 상투구 *komplexe Routineformeln*’ (Gülich 1997, 146)라는 광의의 관용구에 포함될 수 있다.

특허문서 특유의 표현모형은 대체로 특허문서 텍스트에서 특정 텍스트 기능이나 의사소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단어휘 표현체들은 특허문서 내에서 특정한 텍스트 단락에 위치하고 있다. 단어휘 구성 표현체들이 특허문서에서 어느 텍스트 단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어떤 의사소통적 기능 혹은 텍스트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1: 텍스트기능 1]

텍스트 기능 1: 발명품 제시			
텍스트 단락: 서지의 요약 단락이나 설명의 도입부분		텍스트 단락: 서지의 요약 단락이나 설명의 도입부분	
독 일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ie vorliegende Erfindung betrifft ...</li> <li>•Ferner betrifft die Erfindung ...</li> <li>•Die vorliegende Erfindung betrifft noch ferner ...</li> <li>•Die vorliegende Erfindung bezieht sich auf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발명은 ... 에 관한 것이다</li> <li>•본 발명은 또한, ...에 관한 것이다</li> <li>•본 발명은 ...하는 것이다</li> </ul>	한 국 어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어 ‘die vorliegende Erfindung betrifft ...’와 한국어 ‘본 발명은 ...에 관한 것이다’는 특허문서의 ‘서지 요약’이나 ‘발명품에 대한 설명의 도입’에서 발명품을 제시하거나 발명품의 전문분야를 특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표현체들은 요약 단락의 시작이나 설명 단락의 도입을 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아래 도표에서는 특허출원 발명품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를 적시하고 그에 관한 현 단계 기술수준에 대해 서술하면서 발명품과 유관한 기존의 특허를 제시하는 텍스트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표현모형 혹은 구성구조는 나아가 관련 기술에 관한 단점 및 기술적 한계를 제시하기도 한다.

[도표2: 텍스트기능 2]

텍스트 기능 2: 기술 수준에 대한 설명			
텍스트 단락: 설명(기술 수준에 대한 설명)		텍스트 단락: 기술분야	
독 일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ind aus dem Stand der Technik bekannt, ...</li> <li>•Es ist weiterhin bekannt, ...</li> <li>•Bekannt ist weiterhin (eine Vorrichtung),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리는 이미 ....에서 알려져 있다.</li> <li>•...는 특히 ...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li> <li>•...는 ...의 분야에 있어서 폭넓은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li> </ul>	한 국 어

[도표3: 텍스트기능 3]

텍스트 기능 3: 이전 특허 텍스트 지시 개시			
텍스트 단락: 설명(기술수준에 대한 설명)		텍스트 단락: 기술분야	
독 일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s der [DE .. .. ] ist ein [...] bekannt</li> <li>• Ein derartiges Verfahren und eine derartige Vorrichtung sind aus der [DE .. .] bekannt.</li> <li>• In der [DE .. .] wird ein [...] offenbart, welches ...</li> <li>• Die [DE ... ..] beschreibt eine Vorrichtung und ein Verfahren zur ...</li> <li>• die [EP ...] offenbart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는 ...에 공지되어 있다.</li> <li>• 본 발명은 ...의 명세서를 참고로 하며, ...는 참고에 의해 본원에 포함된다.</li> <li>• 이러한 종류의 ...는 ... 공보로부터 공지되어 있다.</li> <li>• ... 특허에는 ...가 개시되어 있다.</li> </ul>	한 국 어

[도표4: 텍스트기능 4]

텍스트 기능 4: 현 기술수준에 대한 비판의 개시(텍스트 제한 표시로서 기능)			
텍스트 단락: 설명(기술수준에 대한 비판)		텍스트 단락: 기술분야	
독 일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chteilig an den bekannten[...] ist jedoch, dass ...</li> <li>• Nachteilig an diesem bekannten Vorrichtungen bzw. Verfahren ist jedoch, dass ...</li> <li>• Ein weiterer Nachteil des Standes der Technik ist die Notwendigkeit,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러한 ...는 ...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li> <li>• ... 하는 경우는 ...하여 많은 문제가 되어 왔다.</li> <li>• 여기서 ... 있다는 것이 불리하다.</li> <li>• 여기서 ... 것이 단점이다.</li> </ul>	한 국 어

위의 도표 3의 ‘이전 특허를 지시하는 기능과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보면, 독일어의 경우, 술어가 ‘bekannt sein’, ‘offenbaren’, ‘beschreiben’ 등이 있으며 한국어의 경우 ‘공지되다’, ‘명세서를 참고하다’, ‘개시되어 있다’ 등이 보인다. 또한 텍스트 기능 4의 현재 기술수준 비판에 있어서 독일어의 경우, 기존 기술의 개선해야 될 단점을 ‘nachteilig’라는 형용사로 표현하고 있고 한국어의 경우는 ‘문제가 된다’, 혹은 ‘문제가 발생한다’, ‘불리하다’, ‘단점이다’라고 표현

하고 있다.<sup>8)</sup>

[도표5: 텍스트기능5]

텍스트 기능 5: 발명의 목적 열거 개시			
텍스트 단락: 설명(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텍스트 단락: 발명의 내용(해결하려는 과제)	
독 일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fgabe der vorliegenden Erfindung ist es (daher), ...</li> <li>• Der Erfindung liegt die Aufgabe zugrunde,</li> <li>• Es ist weiterhin Aufgabe der Erfindung, ...</li> <li>• Ausgehend von diesem Stand der Technik liegt der Erfindung die Aufgabe zugrunde, ...</li> <li>• Hiervon ausgehend ist es Aufgabe der vorliegenden Erfindung,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의 목적은 ...를 제공 하는데 있다.</li> <li>•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를 제공 하는 것에 있다.</li> <li>• 이에 착안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를 제공하는 것이다.</li> <li>•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한 문제점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li> </ul>	한 국 어

[도표6: 텍스트기능 6]

텍스트 기능 6: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발명의 특징들 열거 개시			
텍스트 단락: 설명		텍스트 단락: 발명의 내용	
독 일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rfindungsgemäß wird die Aufgabe dadurch gelöst, dass...</li> <li>• Diese Aufgabe wird erfindungsgemäß durch eine [ ...] mit den Merkmalen des Patentanspruchs[...] gelöst.</li> <li>• Dies wird erfindungsgemäß mittels der Merkmale des Anspruchs [...] gelös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목적은 청구항 제 ...항의 특징부를 가진 ...에 의해 해결된다.</li> <li>• 본 발명의 목적은 독립항 ...의 특징부에 의해 달성된다.</li> </ul>	한 국 어

8) 특허문서 내에서 현 기술의 문제점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어휘로는 독일어의 경우 'begrenzt', 'beeinträchtigt', 'ungeeignet', 'umständlich', 'müde', 'aufwendig', 'teuer' 등이 있고, 한국어의 경우에는 '불리하다', '노력이 상당이 큰', '훨씬 더 큰 위험성' 등이 있다.

텍스트 기능 5와 6은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발명 자체와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서 쓰이는 구문들은 발명의 목적 열거의 개시 기능과 기존 기술수준 문제 해결을 위한 발명의 특징들의 열거 개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체들이 나타나는 텍스트 부분은 전체 특허문서 텍스트 구조에 있어서 독일어의 경우 텍스트 단락 ‘설명’에 계속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국어의 경우 ‘발명의 내용’이라는 설명에서 독자적인 하위 텍스트 단락에 속해 있다.

텍스트 기능 6에서 눈에 띄는 것은 독일어와 한국어 자료 모두에 ‘mit den Merkmalen des Patentanspruchs[...]’, ‘제 ...항의 특징부를 가진 ...에 의해’와 같은 특허 청구항에 대한 후대용적 지시 표현이 동반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도표7: 텍스트기능 7]

텍스트 기능 7: 선호되는 실시형태의 특징에 대한 설명 개시 (텍스트 제한 혹은 재수용표시)			
텍스트 단락: 설명, 발명의 실시예		텍스트 단락: 실시예	
독 일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ine besonders vorteilhafte Weiterbildung der Erfindung sieht vor, dass ...</li> <li>•Ein erfindungsgemäßer [...] ist vorteilhafterweise derart ausgebildet, dass ...</li> <li>•Eine weitere vorteilhafte Ausgestaltung des erfindungsgemäßen Verfahrens sieht vor, dass ...;</li> <li>•... ist, es, vorteilhaft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리한 실시예 및 다른 양태는 종속항 ... 및 실시예에 제시된다</li> <li>•... 하는 것이 유리하다..</li> </ul>	한 국 어

[도표8: 텍스트기능 8]

텍스트 기능 8: 도안에 대한 지시			
텍스트 단락: 설명, 실시예 설명		텍스트 단락: 실시예	
독 일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ie Erfindung wird nachfolgend anhand eines Ausführungsbeispiels mit Bezug auf ... näher erläutert.</li> <li>•Figur ... zeigt in der Seitenansicht ein Ausführungsbeispiel ...</li> <li>•Wie aus den Figuren [...] und [...] ersichtlich, ...</li> <li>•Aus Figur [...] ist [...] ersichtlich, ...</li> <li>•In Figur ... ist im Detail dargestellt.</li> <li>•In den Figuren ... und ... ist ... gezei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발명은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실시예 ...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된다.</li> <li>•이하 실시예로 본 발명이 더욱 상세히 설명되나 이로 제한된 것은 아니다.</li> <li>•이하 본 발명이 실시예를 기반으로 설명된다.</li> <li>•도 ...에는 ...가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li> </ul>	한 국 어

텍스트 기능 7과 8의 도표에는 발명의 실시예 중에서 발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실시 형태에 관한 설명 개시의 기능과 그 실시형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도안을 지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체 혹은 구성 구조가 있다. ‘nachfolgend’나 ‘이하’는 도안 제시를 위한 후대용적 지시를 통하여 메타 의사소통적으로 텍스트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이다.

[도표9: 텍스트기능 9]

텍스트 기능 9: 이전 청구항에 대한 대용적 지시가 들어 있는 종속청구항 개시			
텍스트 단락: 특허 청구항		텍스트 단락: 특허 청구항	
독 일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orrichtung nach Patentanspruch [...], ...</li> <li>•[...] nach einem der vorherigen Patentansprüche, ...</li> <li>•Verfahren nach einem der Ansprüche [...] oder [...],</li> <li>•[...] nach einem oder mehreren der Ansprüche [...] bis [...],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 항에 있어서 상기 ...는 ...</li> <li>•제 ...항내지 제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는 ...</li> </ul>	한 국 어

[도표10: 텍스트기능 10]

텍스트 기능 10: 청구 보호되어야 할 새로운 발명의 특성을 공시하기 위한 표현들			
텍스트 단락: 특허 청구항 (주 청구항 혹은 종속청구항)		텍스트 단락: 특허 청구항	
독 일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rmeln zur Ankündigung der zu schützenden neuen Erfindungsmerkmale bei der sog. zweiseitigen Fassung der Ansprüche ... dadurch gekennzeichnet, dass ...</li> <li>• gekennzeichnet durch (die Kombination der folgenden Merkmal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는 ...을 특징으로 하는 ...의 제조방법</li> <li>• ...을 특징으로 하는 ...의 제조방법</li> <li>• 제 ...항 내지 제 ...항 어느 한 항으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i> </ul>	한 국 어

도표 9와 10에는 특허청구항 단락과 관련된 고정 표현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종속청구항을 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허청구를 통해 보호되어야 하는 발명의 특징을 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종속청구항을 개시하는 표현체에는 이전 청구항을 지시하는 어휘, 즉 ‘vorherig’나 ‘상기’가 들어 있다.

위의 10 개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문서에서 나타나는 ‘발명제시’, ‘이전 특허에 관한 텍스트 지시 개시’, ‘현재 기술수준에 대한 비판의 개시’ 등과 같은 텍스트 분절 기능을 수행하는 고정 표현체들은 특정 텍스트에 위치하여 단락의 시작이나 다른 텍스트 단락과의 연관성 및 단절성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문장 아래의 언어 단위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구구조를 넘어서는 하나의 구성 구조물 Konstruktion 혹은 표현모형 Formulierungsmuster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구조물은 특허문서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구성단위이다.

### III.2. 독일어와 한국어 특허문서에 나타나는 구단위 관용 표현

앞 절에서는 특허문서의 주요 구성 표현체인 탈구구조의 문장이하 고정 표

현모형을 살펴보았다. 이제 특허문서에서 볼 수 있는 협의의 관용구에 해당하는 구구조 단위의 어휘 표현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Burger (2007, 36f.) 분류에 의하면 어휘결합체인 관용구는 지시 명명적 관용구, 구조적 관용구 그리고 의사소통적 관용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지시 명명 관용구라고 분류할 수 있는 표현체들이 전문적 텍스트 유형에 주로 나타난다. 선택한 자료에서 특허문서라는 텍스트유형 특유의 전문어적 관용구를 통사적인 관점에서 분류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명사적 관용 표현

독일어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rfundungsgemäße Vorrichtung</li> <li>• gattungsgemäße Vorrichtung</li> <li>• Stand der Technik</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발명에 따른 목적</li> <li>• 본 발명에 따른 처리</li> <li>• 본 발명에 따른 장치</li> <li>•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li> <li>• 상기 특허 출원</li> </ul>

독일어의 경우 명사기저에 형용사가 부가적으로 붙는 구구조나 소유격 부가어와 명사의 결합형태가 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어의 경우 독일어에서 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인 양상의 명사구가 보인다.

### 2) 형용사적 관용 표현

독일어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instückig ausgebildet</li> <li>• lösbar verbunden (mi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언급된</li> <li>• 이하 설명되는</li> </ul>

형용사적 관용구에 포함될 수 있는 특허문서의 어휘결합체는 독일어에서는 형용사와 동사의 과거분사가 결합한 구구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명사와 동사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수집하기는



했으나, 이 표현체를 형용사적 관용구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러한 표현들이 문장 내에서의 통사적 기능적인 측면에서 왼쪽 칸의 독일어 형용사적 관용구에 부합되므로 기능적 유사 등가치로 분류하였다.

3) 부사적 관용 표현

독일어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 schematischer Darstellung</li> <li>• in Seitenansicht</li> <li>• in verschiedenen Forme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예에 있어서</li> <li>•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li> <li>• 첨부 도면으로</li> <li>• 본발명에 따르면</li> <li>• 제 ... 항에 있어서</li> </ul>

부사적 관용구로서 독일어의 경우에는 전치사와 명사의 결합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어의 경우는 부사적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와 결합된 명사들의 결합체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IV.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독일어와 한국어의 특허문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어휘들의 고정적 결합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허문서는 기술과 법률에 관한 전문적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 특허문서에 쓰인 언어의 복합적인 특성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언어와 법언어와의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특허문서의 주요 특징으로는 관습성 및 정형성이 있는데, 이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은 국제적으로 통일화되어 있는 거시구조이다. 특허문서 텍스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수의 정형적인 어휘결합체들, 즉 통사적으로 고정된 하나의 덩어리 형태의 결합체에서도 특허문서 특유의 언어적 표준화

와 정형화가 드러나고 있다. 이 고정표현은 단순히 단어들이 결합된 명사구나 동사구 혹은 형용사구를 넘어서는 탈구구조를 띠는 형태로 문장 바로 아래 단계의 결합구조를 지니므로 표현모형 *Formulierungsmuster*라고 한다. 독일어와 한국어 특허문서에서 볼 수 있는 표현모형구조를 의사소통적 기능 혹은 텍스트 언어학적 기능에 따라 크게 10 가지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다어휘 고정 결합체인 표현모형이 특정 텍스트 위치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특정 표현모형은 특허문서 텍스트의 어떤 단락을 구성하는 도입 및 개시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표현체들은 단락과 단락의 연결이나 텍스트 단락의 분절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대응적 혹은 후대용적 지시사는 특허문서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적 정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텍스트와 도안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지시 표현들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지시적 표현은 특허문서 거시구조의 확고한 응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어와 한국어 특허문서 각각 10 개씩을 기반으로 분석한 일종의 예비 연구로서 두 언어의 특허문서에 나타나는 고정 표현체의 특징 및 그 기능에 있어서의 경향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을 사실로 입증할 수 있도록 양적으로 더 큰 코퍼스를 기반으로 더 큰 타당성 및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주영(2011): 술어-논항 구조와 번역 규칙 적용 순서를 고려한 통계적 기계 번역,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정수정(2012): 독일어 기원 및 계기 상투구에 관하여, 독일문학 53권 123집 3호, 167-187
- 최승권 외(2012): 패턴기반 영한 자동번역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도메인 특화 방법,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39(4) 253-260
- Burger, Harald (2007): *Phraseologie. Eine Einführung am Beispiel des Deutschen.* (Grundlegender Germanistik 36.), Berlin
- Gläser, Rosemarie (1998): Fachtextsorten der Techniksprachen: die Patentschrift. Lothar Hoffmann, Hartwig Kalverkämper, Herbert E. Wiegand (Hg.): Fachsprachen. (Handbücher zur Sprach- und Kommunikationswissenschaft 14.1.) Berlin: de Gruyter, 556-562
- Göpferich, Susanne (1995a): Von der Terminographie zur Textographie: Computergestützte Verwaltung textsortenspezifischer Versatzstücke." Fachsprache/International Journal of LSP17 [1-2] 17-41
- Göpferich, Susanne (1995b): *Textsorten in Naturwissenschaften und Technik. Pragmatische Typologie. Kontrastierung. Translation.* Tübingen
- Göpferich, Susanne (1996): Textsortenkanon: Zur Text(sorten)auswahl für fachsprachliche Übersetzungsübungen." Andreas F. Kelletat (Hg.): Übersetzerische Kompetenz. Beiträge zur universitären Übersetzerausbildung in Deutschland und Skandinavien. (Publikationen des Fachbereichs Angewandte Sprach- und Kulturwissenschaft der Johannes-Gutenberg- Universität Mainz in Gernersheim, Reihe A: Abhandlungen und Sammelbände 22.) Frankfurt a. M. u.a., 9-38
- Göpferich, Susanne (1998): *Interkulturelles Technical Writing. Fachliches adressatengerecht vermitteln: ein Lehr- und Arbeitsbuch.*, Tübingen
- Göpferich, Susanne (2002): *Textproduktion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Entwicklung einer Didaktik des Wissenstransfers.* (Studien zur

Translation 15.) Tübingen

- Göpferich, Susanne (2006): Patentschriften. Mary Snell-Hornby, Hans G. Honig, Paul Kußmaul, Peter A. Schmitt (Hg.): Handbuch Translation. 2. Aufl. Tübingen, 222-225
- Gülich, Elisabeth (1997): Routineformeln und Formulierungsroutinen. Ein Beitrag zur Beschreibung 'formelhafter Texte'. Rainer Wimmer, Franz-Josef Berens (Hg.): Wortbildung und Phraseologie. (Studien zur deutschen Sprache 9.) Tübingen, 131-175
- Härtinger, Heribert (2010): Zur maschinenunterstützten Übersetzung von Patentschriften: der Stellenwert der internen Rekurrenz. Fachsprache 32 [1-2]: 18-39
- Kühtz, Stefan (2007): *Phraseologie und Formulierungsmuster in medizinischen Texten*. Tübingen
- Lüger, Heinz-Helmut (2007): Pragmatische Phraseme: Routineformeln. Harald Burger, Dmitrij Dobrovol'skij, Peter Kuhn, Neal R. Norrick (Hg.): *Phraseologie / Phraseology*. Halbband 1.(Handbücher zur Sprach- und Kommunikationswissenschaft 28.1.) Berlin/New York, 444-459
- Heribert Härtinger trans-kom 3 [2] (2010): Textsortentypische Phraseologismen und Formulierungsmuster in europäischen Patentschriften, 209-238
- Schamlu, Miriam (1985): *Patentschriften . Patentwesen. Eine argumentationstheoretische Analyse der Textsorte Patentschrift am Beispiel der Patentschriften zu Lehrmitteln*. München
- Scheel, Harald (1997a): Sprachliche Konventionen in französischen Patentschriften. Eberhard Fleischmann, Wladimir Kutz, Peter A. Schmitt (Hg.): *Translationsdidaktik. Grundfragen der Übersetzungswissenschaft*. Tübingen, 487-493
- Stein, Stephan (1995): *Formelhafte Sprache. Untersuchungen zu ihren pragmatischen und kognitiven Funktionen im gegenwärtigen Deutsch*. (Beiträge zur Sprachwissenschaft: Sprache in der Gesellschaft 22.) Frankfurt a.M.

Stein, Stephan (2007): Mündlichkeit und Schriftlichkeit aus phraseologischer Perspektive. Harald Burger, Dmitrij Dobrovol'skij, Peter Kuhn, Neal R. Norrick (Hg.): Phraseologie /Phraseology. Halbband 1. (Handbcher zur Sprach- und Kommunikationswissenschaft28.1.) Berlin/New York, 220-237

Zusammenfassung

## Zur Analyse von mehr oder weniger festen Wortverbindungen in Patentschrifte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Jeong, Su-Jeong (Chungbuk National Uni)

In diesem Beitrag wird versucht, unter syntaktischen, textlinguistischen und pragmatischen Aspekten mehr oder weniger feste Ausdrücke bzw. Formulierungsmuster in Patentschrifte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u untersuchen.

Patentschriften sind eine Textsorte des gewerblichen Rechtsschutzes. Die kommunikative Aufgabe der Patentschriften ist es, auf erfinderischen Tätigkeiten beruhende Produkte, Verfahren oder Anwendungen zu dokumentieren und das zeitlich begrenzte Monopol ihrer wirtschaftlichen Verwertung gegen Dritte zu schützen.

Aus der Analyse des relativ kleinen Korpus ging hervor, dass die routinemäßige Verwendung textsortentypischer und -spezifischer Formulierungsstereotype ein prägendes Merkmal von Patentschriften in deutscher und koreanischer Sprache darstellen. Eine hohe Frequenz vorgeprägter Formulierungen gehört zu den sprachübergreifenden Eigenschaften dieser Textsorte. In struktureller Hinsicht umfasste das nachgewiesene Inventar Formulierungsroutinen und Phraseologismen im engeren Sinne. Die erste Gruppe besteht aus Formulierungsmustern in Form syntaktischer Fertigstücke, die überwiegend als Gliederungs- und Erkennungssignale für spezifische Teiltexthe fungieren und eine deutliche Tendenz zur Ökonomisierung der Textproduktion zum Ausdruck bringen. Im Gegensatz

dazu besteht die zweite Gruppe aus referentiell-nominativen (substantivischen, adjektivischen und adverbialen) Phraseologismen.

Damit sind Patentschriften durch die folgenden auffällige sprachübergreifenden Merkmale gekennzeichnet: (1) die Dominanz der totalen Rekurrenz als Kohäsionsmittel, (2) eine überdurchschnittliche syntaktische Komplexität sowie (3) die auch für juristisch geprägte Fachtexte ungewöhnlich langen Sätze. Dies ergibt sich daraus, dass Ökonomie und Verständlichkeit als funktionale Eigenschaften einer Fachsprache im Falle der Patentschrift eine untergeordnete Rolle spielen, während die syntaktisch kohäsiven Mittel zur Herstellung der Deutlichkeit von großer Bedeutung sind.

주제어: 특허문서, 표현모형, 정형성, 관습성, 전문어

Schlüsselbegriffe: Patentschrift, Formulierungsmuster, Vorgeprägtheit,  
Konventionalität, Fachsprache

필자 E-Mail: jsjottuki@naver.com

논문투고일: 2014. 10. 19, 논문심사일: 2014. 11. 16, 게재확정일: 2014. 11. 24.